



화공을 전공하고 주식회사 실트론에서 안전업무에 뛰어난 지 올해가 7년차인 송동철 과장! 안전인의 잔치인 제40회 산업안전 보건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앞서 선배들이 이룬 무재해를 계승하여 지난 3월 무재해 14배를 달성하고, 안전점검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실트론의 안전문화의 기반을 다진 송동철 과장의 안전의 세계를 들어가 본다.



주식회사 실트론 안전환경시설팀 **송 동 철** 과장

먼저 제40회 산업안전보건대회에서 국무총리표창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잘 만들어진 시스템과 멋진 안전문화를 가진 기업도 많은데 먼저 상을 받게 되어 조금 부담스럽지만 더 노력하라는 격려로 생각합니다. 이런 성과를 이룬 데는 최고경영자의 의지를 바탕으로 실트론 전 사원이 안전에 대한 신뢰와 무재해를 향해 한마음으로 달려온 산물이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매년 새해 아침에 무재해를 기원하는 안전기원제를 최고경영자와 노동조합 그리고 전부서장 및 현장 관리감독자까지 한마음으로 무재해를 기원하는 정성에서 기인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더 나은 시스템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실트론의 안전문화를 위해 다양한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일반 제조회사와 달리 전자부품 제조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공학과 개론적인 안전보다

는 전체를 아우르는 시스템적인 안전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처음 안전업무를 시작할 때 교과서적인 기법들을 적용했었는데 시간적인 Loss만 발생하고 결과도 미미하여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적용한 것이 부서평가제입니다. 개별적인 관리 보다는 공정단위 또는 부서단위 등 소단위 안전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공정 또는 부서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F/B하여 대상공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공유함으로써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는 자율안전입니다. 이밖에도 회사전체의 안전 활동을 가늠하는 안전지수 산출, 공정별 특성에 맞는 교재개발 등이 있으며, 공사안전 확립을 위하여 협력업체 평가 및 공사규정 위반자에 대한 3진 아웃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On-Line 관리를 통해 무재해 실트론을 구현하셨다고 소개받았습니다. 어떤 것인지요.

현장 안전점검 지적사항을 실시간으로 개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기존의 Off-Line 지적관리를 On-Line화한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Off-Line상

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 빠른 의사결정에 의한 실행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무엇보다도 문서작업을 줄이고 실시간으로 자료관리가 가능하고, Web 기반에 구축되어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업무 편의성이 큰 장점입니다.

시스템의 구조는 지적사항 등록 후 3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현장 관리감독자(계장, 반장)가 직접 등록하고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여 자발적인 실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3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등록하지 않으면 지연 메일이 해당부서장님께 발송되어 지연사항이 바로 통보되고, 5일 후에는 최고경영자에게 메일로 통보되도록 되어있어 지적사항은 반드시 개선하도록 시스템화 한 것입니다. 구축초기에는 지연 메일이 수시로 최고경영자에게 발송되어 해당 부서장님들께서 많은 질책을 받으셨고 그로 인해 시스템 운영에 대한 많은 비난을 받은 적도 있지만 지금은 개선에 대한 관심과 On-Line 관리시스템의 정착으로 2002년 업무 적용 이후 총 5,887건 개선과 최근 월 개선율이 90% 이상으로 작업환경은 나날이 개선되어 현재 무재해 14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은 근로자와 직결되는 부분이라 늘 근로자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무엇보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규정과 시스템이 있더라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반대로 아

무리 잘 지키더라도 안전상의 결함이 있는 설비나 시스템이라면 마찬가지로 결과가 나오듯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할 의무이자 보장받을 권리”라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준수, 실천우선, 상호신뢰가 기본 바탕이 되어, 생활 속에서 안전이 배어나게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직 특성에 맞는 안전문화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내세운다면 절대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 안전이지요.

안전인의 축제인 안전보건대회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셨는데, 한편으로는 부담도 되리라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외국 선진기업에서 여러 가지 안전기법들이 개발되어 우리나라에 많이 도입,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기법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무재해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안전 활동의 바로미터로 활용할 수 있는 선진 안전관리기법을 개발하여 회사 성장에 기여하고, 세계적인 안전시스템으로 개발하고 싶습니다. 

〈최종덕 기자〉

